

나주시-aT, 농산물 직거래 '바로마켓' 연다...10월 첫 개장

aT, 5년간 10억 지원...매주 금·토 빛가람 호수공원에서 운영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등에 출하하는 농가·농업법인 대상

나주시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지원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농산물 직거래장터 '바로마켓' 문을 연다. 바로마켓 나주점은 오는 10월13일부터 11월25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빛가람 호수공원 일원에서 장터를 열 예정이다. 8일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농업진흥재단은 최근 aT와 '바로마켓형 대표장터' 운영 이해약정 체결을 통해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을 확

정했다. 약정에 따라 aT는 올해부터 5년간 바로마켓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치·홍보·교육 사업비 등으로 1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장터 운영 주체인 농업진흥재단은 10월 말부터 빛가람 호수공원에서 50여 농가가 참여하는 '바로마켓 나주점' 개설을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한다. 참여 자격은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등에 우수 농산물과 가공식품 등을 출하하는 농가와

농업법인이다. 참여를 원하는 농가와 농업법인은 나주시청이나 나주농업진흥재단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재단은 참여 농가에 카드단말기를 비롯해 냉장고 등 기본 물품을 지원한다. 이웅범 나주농업진흥재단 부이사장은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주는 것이 바로마켓 나주점의 목표"라며 "aT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전남을 대표하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로 육성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송준표기자



나주 빛가람 호수공원 '상생푸드마켓' 모습. (사진=나주시 제공)

장성군, 추석 맞아 고향 사랑기부제 집중 홍보

터미널·관광지 등에 홍보물 설치

장성군이 추석을 앞두고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박차를 가한다. 군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출향민들의 방문이 예상됨에 따라, 장성역과 터미널 등 인파가 집중되는 곳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물을 설치할 방침이다. 총 6일간의 황금연휴가 이어지는 만큼 장성 주요 관광지인 백양사, 축령산, 황룡강 등에도 현수막을 걸고 안내 전단지 등을 비치한다. 에스엔에스(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도 병행한다. 군은 블로그와 카드뉴스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혜택과 답례품을 알기 쉽게 소개한다.

장성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총 66개 품목으로, 계절상품 등을 제외한 52개 품목이 '고향사랑이(에)음' 사이트에 등재되어 있다. 꽃감, 새싹삼, 벌꿀 등 농특산물을 비롯해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답례품이 마련돼 있다. 특히, 추석을 앞둔 요즘 가장 눈에 띄는 상품은 '별초 대행 서비스'다. '별초 대행 서비스'는 장성군산림조합이 추석 명절 기간에만 연 1회 운영하는 상품이다. 고향 방문이나 별초가 어려운 기부자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으로, 10만 원 기부하면 3만 원 할인권을 답례품으로 제공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이달 12일까지 별초대행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면서 "조기 매진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수권기자

화순군, 고인돌보호각 새단장

노후화된 탐방로 황토포장·데크 교체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

화순군은 고인돌 보호각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고인돌 보호각 주변 정비사업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고인돌 보호각 주변은 기존의 노후화된 탐방로 황토포장과 데크를 교체하여 관광객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도록 조성하였다. 또한 보호각 안내소 및 데크의 변색된 목재에 오일스텐 도장 작업을 진행하여 보호각 경관과 조화를 이루게 하였다. 이와 함께, 화순군은 고인돌 보호각 내부의 노후화된 기차대 교체 및 시설물 보수를 위한



'고인돌 보호각 내부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물 교체 추진 중에 있으며, 9월에 실시설계 용역

을 완료하고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고인돌보호각 고유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관람객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준비에 힘 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순군은 2023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를 10월 20일부터 10월 29일까지 10일간 세계문화유산 화순 고인돌유적지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고인돌 보호각 주차장에서는 농특산물 판매 등 체험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화순=박순철기자

곡성군 옥과공공도서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 선정 '쾌거'

국비 6억 원 포함 총사업비 10억 원 확보...내년부터 사업 추진



곡성군이 국토교통부 주관'2023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옥과공공도서관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곡성군은 국비 6억 원을 포함한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

다. 옥과공공도서관은 2024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태양광 패널 설치와 외단열 벽체 교체 등의 에너지 효율 개선 작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전력 소모량을 약 30% 절감할 예정이다. 옥과공공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도서관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보다 편안한 실내 환경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만족하는 도서관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옥과공공도서관(☎061-360-8595)으로 하면 된다. 곡성=양해영기자

구례보건의료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축소 운영

토요일 정오까지 일요일·공휴일 중단 추석 연휴 28일~10월 3일 오전 운영

구례군은 지난 8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됨에 따라 11일부터 보건의료원 선별진료소를 축소 운영한다. 8일 구례군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4급 감염병으로 하향됨에 따라 위기 단계가 '경계'로 유지되면서 '주'로 조정될 때까지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할 예정이다. 구례군보건의료원 선별진료소는 기존 평일 운영 시간인 오전 9시~오후 6시와 토요일 오전 9시~ 정오 운영시간은 유지한다. 일요일과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으며, 추석 명절 연휴 6일간은 선별진료소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구례=박진호기자

선별진료소 PCR 검사 대상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 ▲감염 취약 시설 선제 검사(요양병원 등 고위험 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와 해당 환자의 상주 보호자·간병인) 1인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등이며 증빙자료를 지참한 후 무료 검사 받을 수 있다. 이 외 신속항원검사(RAT)는 일반의료기관에서 검사 가능하며, 검사비는 본인 부담해야 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감염 취약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당분간 경계 단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일상이 회복될 때까지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O&M

포스코케미칼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에너지

포스코티미널

포스코ICT

포스코A&C

포스코광판